

조선왕조의 생명력 되살려온 역사의 길

《정도전사상의 연구》에서부터 《조선시대 신분사 연구》까지

한영우

서울대 교수 · 국사학

내가 왕조실록을 직접 읽고 논문이라는 것을 처음 써본 것은 1961년의 학부졸업논문이다. 석사학위 논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대학 4학년부턴 출판사 편집사원으로 일했던 나는 학문에 전력투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논문은 부실했으나, 이때 실록을 읽어본 경험은 그후 내 학문의 단단한 기초가 되었다.

1967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조교가 되면서 비로소 직접적인 학문의 길에 들어섰다. 나는 왕조실록을 이잡듯이 다시 읽으면서 색인노트와 수천장의 자료카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한 연구결실이 《태종~세종조의 대사전시책(對私田施策)》(1969)과 《여말선초의

한량(閑良)과 그 지위》(1969), 그리고 《조선초기 상급서리(上級胥吏) 성중관(成衆官)》(1971)이다. 모두가 사회경제사에 관한 글들이다.

이론과 현실 사이의 심각한 갈등

실록을 토대로 논문을 쓰면서 심각한 갈등에 빠졌다. 조선왕조는 양반을 옹호하는 봉건국가로서 백성을 억압하는 정책을 썼으리라는 것이 실록을 읽기 전의 선입관이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실록은 놀랍게도 정반대의 정보를 담고 있었다. 물론 내 논문도 내가 의도한 것과는 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조선초기 양반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가의 강한 통제를 받았다는 내 연구결과는 학계의 통설과는 반대되는 주장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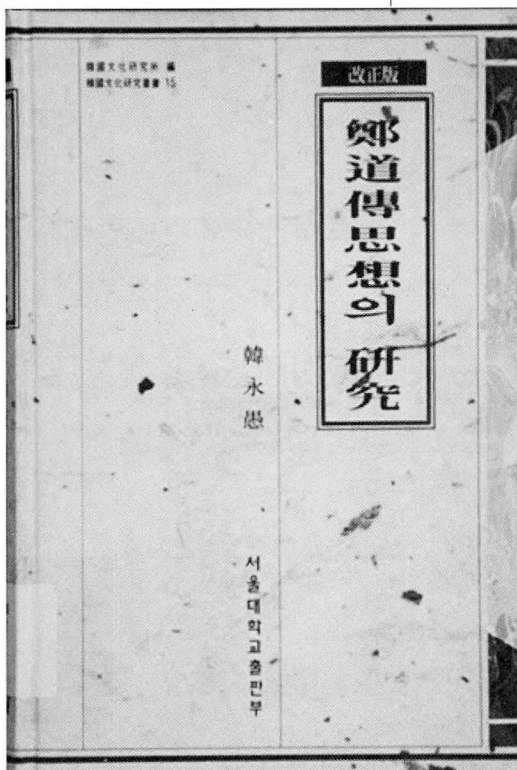
나는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과 번민을 거친 끝에 조선왕조를 전면적으로 다시 연구하기로 작심했다.

우선, 왕조의 건국이념부터 알아보기 위해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 사상 연구에 매달렸다. 그 결실이 《정도전사상의 연구》(1973)로 출간되었다. 사대주의자요 양반옹호주의자로 알려진 정도전은 뜻밖에도 주체성이 강한 민본주의자(民本主義者)였고, 그가 조선왕조를 설계한 최고의 두뇌였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흥분을 가눌 길이 없었다. 유신 직전 박정희 대통령의 인권탄압과 강권정치에 실망을 품고 있던 시절에 정도전을 만난 것은 마치 구세주를 보는 것과 같은 위안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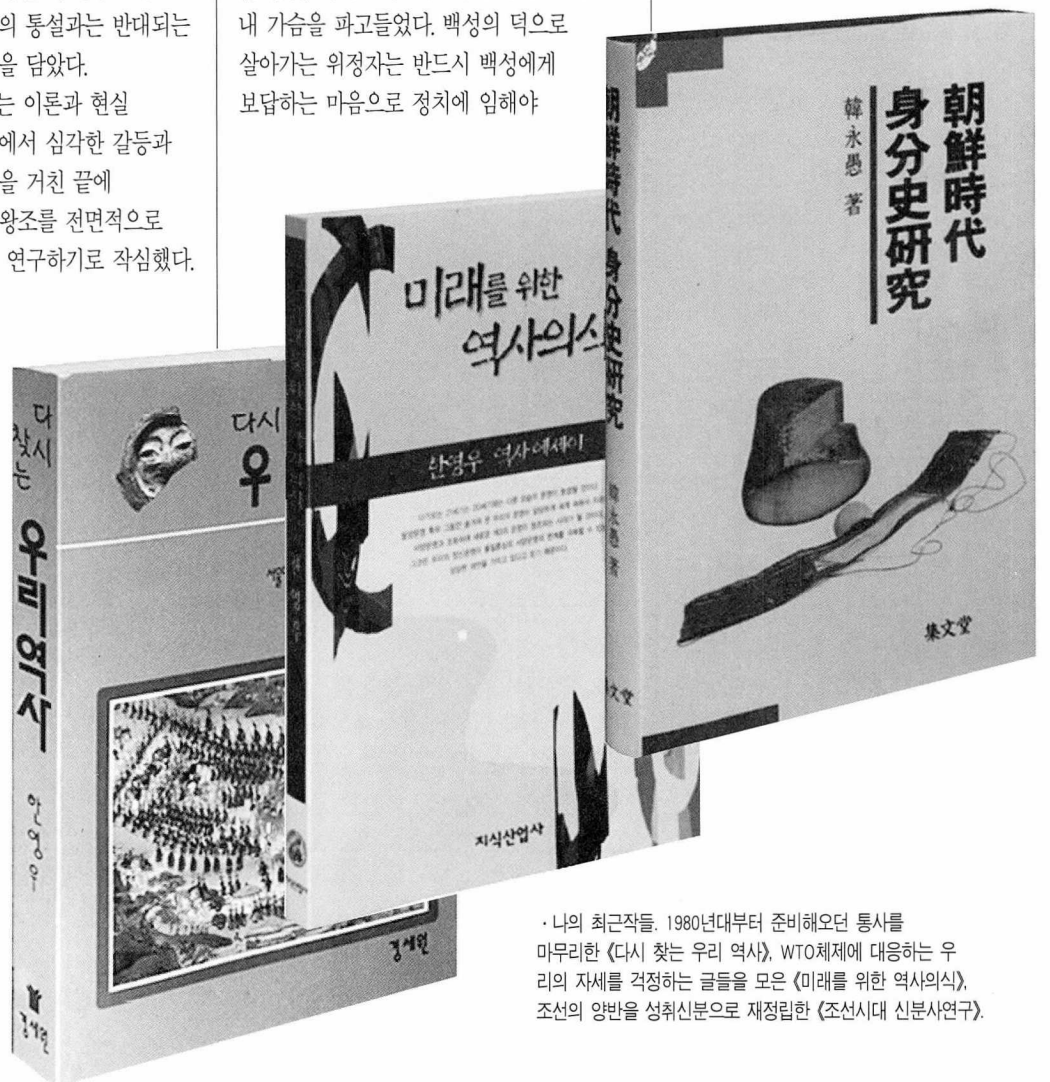
이때부터 정도전과 나는 하나가 되고, 그는 내 인생의 큰 스승이 되었다. 그리고 무미건조한 사회경제사보다 정신적 성장을 가져다주는 사상에 매료되었다. 《삼봉집》의 구절구절은 마치 바이블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백성의 덕으로 살아가는 위정자는 반드시 백성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치에 임해야

한다는 그의 지론은 바로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다. 조선왕조는 죽어버린 시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살아 있는 시대로 가까이 다가왔다. 왕조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굴절된 식민주의사관을 바로잡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정도전을 만나면서 선비정신에 눈뜨게 된 나는 더 많은 선비들을 만나기 위해 연구의 폭을 넓혀갔다. 그래서 나온 것이 《조선전기 사학사연구》(1981), 《조선전기 사회사상연구》(1983), 《조선 후기 사학사연구》(1989), 《한국 민족주의역사학》(1994) 등이다. 특히 사학사(史學史)에 관심을 둔 것은, 역사의식이야말로 가장 포괄적으로 선비정신을 반영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조선왕조가 519년



· 나의 초기작 《정도전사상의 연구》(1973). 정도전을 주체성이 강한 민본주의자요, 조선왕조를 설계한 두뇌로 재평가했다.



· 나의 최근작들. 1980년대부터 준비해오던 통사를 마무리한 《다시 찾는 우리 역사》, WTO체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를 걱정하는 글들을 모은 《미래를 위한 역사의식》, 조선의 양반을 성취신분으로 재정립한 《조선시대 신분사연구》.

어려울 때일수록

생각나는 친구

호황이라고 특별히 잘 나가는 것도 아니면서
불황의 그림자는 출판계에만
늘 짙게 드리워집니다.

이렇게 어렵고 답답할 때일수록
좀더 효율적인 전문 인력으로서
저희가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연'은 단행본의 레이아웃과 교정에서부터
잡지, 아동물, 카탈로그 등 디자인 개념이 요구되는
각종 출판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일괄 작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도 만만치 않다고 자부합니다.



三現編輯室

SINCE 1989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 549-6883~5 팩 스 : 549-6877
천리안 ID : SAMYEUN

장수한 비결과 일제시대 발휘된 민족재생의
생명력이 바로 주체성과 도덕성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역사는 살아 있는 것이고, 살아 있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 바로 그 생명력을 찾아내는
것이 역사가의 본무가 아닌가. 과거의
생명력을 오늘의 삶에 보태준다면 미래의

**왕조의 건국이념부터 알기
위해 매달린 정도전사상 연구는
뜻밖에 구세주를 만난 것과 같은
위안을 주었다. 조선왕조는
죽어버린 시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살아 있는
시대로 가까이 다가왔다.
조선왕조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연구는 곧 외곡된 식민사관을
바로잡는 길이라고 믿고
내 길을 가고 있다.**

생명력도 무궁무진하게 이어질 것이다.
역사를 현실 속에 심고, 현실에서 역사를
보자. 그리고 역사연구는 문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래서 연구와 강의
이외에 여가가 있으면 여행도 많이 하고,
신문과 잡지 등에 칼럼도 쓰고, 외부 특강도
자주 나갔다. 대학에서 연구소와 규장각의
책임을 맡아 10년간의 보직생활도 하였다.
특히 4년간의 규장각생활에서 양반문화의
정수를 만난 것은 내 학문시야를 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여행을 마친 경험담

1996년 규장각을 그만둔 후 나는 내
학문을 중간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지난해에 네권의 저서를 냈다. 그 첫째가
《다시 찾는 우리 역사》이다. 1980년대부터
준비해오던 통사(通史)를 마무리한 것이다.
어쩌면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로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나의 모든 경험담을
담았다고나 할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우리 역사는 케케묵은 식민사관이거나,
허황된 국수주의사관이거나, 아니면 알팍한
상업주의적 역사물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이비 역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안타까움을 떨치지 못하였다.
그것이 내 붓을 재촉한 것이다. 이 책이
지금 학계와 시장에서 적지 않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지만, 나로서는 내 필생의
대표작으로 생각하고 계속 다듬어가고 있다.

두번째 저서는 칼럼과 강연원고들을 모은
《미래를 위한 역사의식》이다. 나의 세번째
칼럼집이기도 한 이 책은 주로
WTO체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를
걱정하는 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세계화시대에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
주체성과 도덕성이라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이른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확인된 우리 민족의
생명력인 까닭이다. 얼빠진 세계화의
위험성을 경고한 나의 우려는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IMF의 수치를 당하면서
현실화되고 있다.

세번째 저서는 《조선시대 신분사
연구》이다. 이 책은 조선시대 양반을
세습적인 특권신분으로 이해해온 해묵은
통설을 비판하는 글과 중인(中人)에 관한
논문을 모은 것이다. 조선의 지배층인
양반을 상하이동이 자유로운 성취신분으로
보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이는 선비정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나의
사상사연구와 표리관계를 갖는다.
양반논쟁은 조선 후기 실학논쟁과 아울러
해방 후 가장 큰 학술논쟁의 하나로 학계는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한 한국사》라는
통사(通史)를 냈는데, 이는 여러 사람의
공저인 까닭에 논외로 해둔다.

돌이켜보면, 나는 시종일관 조선왕조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연구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외곡된 식민사관과 국수주의사관을
바로잡는 핵심과제가 여기에 있다고 믿고
내 길을 가고 있다. 그 길이 즐겁고
행복하여 마음은 항상 젊고 의욕은 갈수록
커진다. 올해의 회갑도 그런 마음으로
맞이할 생각이다. ❖